

Education at a Glance 2009: OECD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2009 교육 동향: OECD 지표

국어 개요

-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는 매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통계를 요약한 OECD 연간 자료집이다.
- 2009년 OECD 교육지표는 1990년대에 비해 2007년 대학졸업자수가 거의 2배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통해 교육체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교육재원은 제한적이지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은 높아지는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2009년 교육지표 자료집은 교육체제가 금전적 가치를 산출하는 교육적인 과정, 재정, 성과 등을 살펴본다.

교육제도 확장에 희소 재원의 효율적 투자

경기 위기로 인해, 교육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압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심화되었다. 첫 번째는 재원의 부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교육지표 2009는 교육의 성과, 재정과 조직 측면에서 어떻게 교육이 확장되어 왔는지 상세하게 개괄한다. 교육 통계자료는 이러한 교육제도가 어느 정도로 금전적 가치와 바람직한 성과를 제공했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체제의 지속적인 확장

지난 수 십 년 간 교육은 급격하게 확장되어 왔다.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단계에 참여하는 인구수가 소수에서 절대다수로 바뀌었고, 후기중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이 광범위해지면서 대부분의 젊은 층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청년(25세~34세) 3명 중 1명이 평균적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하였고, 캐나다, 일본, 한국, 협력국 러시아는 50% 이상의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기에 이르렀다(지표 A1).

교육지표는 교육체제의 확장을 ‘연령별 취학률,’ ‘수업연한,’ ‘학위취득률,’ ‘성인인구의 교육이수율’ 등의 지표로 수치화하며, 이 지표들은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증가했는지에 대한 크기와 최근까지 증가가 유지되는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취학률을 살펴보면, 2007년 OECD의 15-19세 취학률(지표 C1)은 1995년보다 8% 증가한 81%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후기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룬 국가들에서는 증가의 폭이 적은 반면에 체코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등의 국가들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높은 수준의 취학률을 보인다. 멕시코와 터키도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해당 연령 집단 중 절반 정도만이 취학한 상태이다. 2007년 OECD의 20~29세 취학률도 1995년보다 7% 증가하여 20대 인구 4명 중 1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포르투갈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체코공화국, 그리스, 헝가리에서는 1995년보다 약 2배로 증가하였다.

취학률의 증가는 졸업률의 증가로 이어진다(지표 A2, A3). 가장 눈에겨볼만한 변화는 대학교육(고등교육 5A단계 1차 학위) 졸업 인구비율의 증가이다. 2007년 OECD 평균 대학교육 졸업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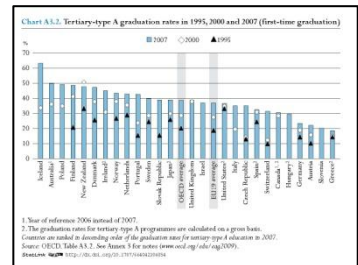
1995년의 두 배에 가까운 39%이다. 이러한 증가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 증가의 크기와 시기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은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후에는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뉴질랜드의 경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함), 그리스(최근 3년 감소현상을 감안한다 하여도),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체코공화국, 스위스는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체코공화국과 스위스는 2000년 대비 2007년 졸업률이 3배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교육수혜 인구의 비율을 반영하여 교육체제를 전환하는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교육성장률이 일시 주춤한 상태에 있다.

**그림 A3.2 1995, 2000과 2007년 대학유형
고등교육기관의
졸업률(최초졸업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졸업률의 증가는 학력의 세대 차를 낳았다(지표 A1). 예컨대, 25~34세 인구의 80%가 평균적으로 후기중등교육을 이수한 반면, 55~64세 인구의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은 반이 조금 넘을 뿐이다.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의 젊은 노동력은 압도적 다수가 대학교육을 이수한 반면, 정년을 앞둔 노동력은 소수만이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두 세대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 5명중 1명에서 3명중 1명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교육 확장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우수한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여성 대학교육 이수자가 남성의 두 배에 이르며, 아이슬랜드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 이상 많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성별 차이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는 남성 대학교육 이수자가 여성보다 많다(지표 A3).
- 해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고등교육단계 국제교류 학생은 3.3% 증가하여 3백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지표 C2).
- 어떤 나라들은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증가하였다. 아일랜드, 스페인, 터키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등교육 제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의 성과 수준

‘학위취득’은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지만 교육지표는 학위취득 외에 ‘지식과 기술의 습득 수준’, ‘취업률과 임금수준’, ‘교육의 사회적 성과’와 같은 교육성과들을 살펴본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이하, PISA)는 학생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이다. 이번 2009 EAG는 새로운 PISA 지표는 높은 과학성취도를 보이는 15세 학생을 주목한다(지표 A4, A5). 이 학생 중 다수가 국가 경제 핵심 과학분야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PISA 지표는 높은 과학성취도

학생의 비율, 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 과학 관련 활동의 수준 등을 국가별로 비교한다. 특히, 높은 과학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4명 중 1명이 평균 이하의 사회경제적 배경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제약이 학업 성취도에 절대적인 장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늘날과 같이 악화된 노동시장 상황에서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후기중등교육 미만의 낮은 학력자는 높은 학력자 보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지표 A6). 또한, 낮은 학력의 청년들은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국가의 25~34세 실업 인구 중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장기실업자이다(지표 C3).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취업자들 중 50% 이상이 학력으로 인한 임금 혜택(premium)을 누리며 일부 국가에서는 학력의 임금 혜택(premium)이 더 컸다(지표 A7). 평균적으로 고등교육의 이수가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 3단계)이나 중등후비고등(4단계)교육 단계보다 두 배 가량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지닌다(지표 A8).

이 자료집은 교육의 경제적 성과를 사회적 성과 지표로 보충하고 있다(지표 A9). 사회적 성과 지표는 사회통합과 개인의 건강을 반영한 세 가지 차원(건강, 정치적 관심, 대인간 신뢰)을 측정한다. 세가지 사회적 성과가 교육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지만 성과 지표에 따라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지 교육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후기중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일수록 더 좋은 건강상태를 보고하였고 정치적 관심과 대인간 신뢰는 고등교육 이수와 더 관련 있었다.

교육재정

학생1인당 지출과 1인당 GDP 간의 관계는 고등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기는 하지만 각 국가의 교육지출 규모는 부분적으로 국부 수준과 관련 있다(지표 B1). 지난 10년간 교육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들 중 절반에서는 GDP성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지표 B2).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학생 1인당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였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지출 증가가 학생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OECD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의 1/3에서 학생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지표 B1).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재원이 멕시코 22%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10% 수준까지 차이는 있지만, 교육비는 여전히 국가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지표 B4). 재정충당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지출이 공공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지표 B3). OECD 평균적으로 공공지출이 교육비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적은 나라들이 있다.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협력국 칠레와 이스라엘의 고등교육비는

그림 A4.1 PISA 2006 과학성취도 평가의 최상위 수준 학생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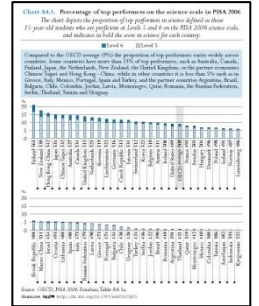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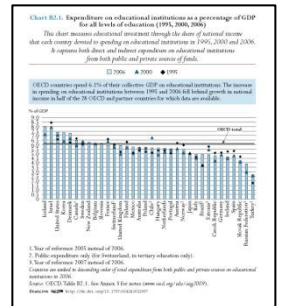


그림 B2.1 전체 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교육기관의 지출비율(1995, 2000, 2006)



대부분 민간 재원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등록금의 차이 때문인데, OECD 국가 중 7개 국가는 등록금이 없는 반면, 1/3개의 국가에서 대학등록금은 1500 USD 이상이다(지표 B5).

교수학습 환경

교육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초등교육단계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을 약간 넘는다(지표 D2). 회원국 중 3개 국가만이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을 넘으며 2000년 이후 한국이나 터키처럼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나라들 중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자원공급에서 학급크기보다 국가별 차이가 많은 교사급여이다(지표 D3). 초등교육 15년 경력교사의 급여가 많게는 1인당 GDP 대비 2배가 넘는 한국부터 적게는 1인당 GDP 대비 75% 미만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협력국 에스토니아와 이스라엘까지 다양하다.

교사의 근무시간 구성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 초등학교 연간 순 수업시수가 덴마크, 헝가리, 터키, 협력국 에스토니아는 650시간 보다 적은 반면, 미국은 1080시간이다(지표 D4).

이번 자료집에 추가된 OECD 교수-학습 국제 설문 조사(이하, TALIS)는 교수-학습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지표 D5, D6). TALIS는 학습 환경과 교사 근무 현황에 주목한 최초의 국제 조사로 23개 참여국의 중학교 교사와 학교장의 응답을 근거로 한다.

TALIS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평가와 교원평가가 자신들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교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미비한 평가구조를 가지며 평가로 인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1/3이상의 학교는 지난 5년간 어떠한 형태의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LIS 조사결과, 평균 22%의 교사들이 아무런 평가나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45%를 넘었다(지표 D5).

TALIS는 교사의 수업 관행, 신념 및 전문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지표 D6). 대부분의 참가국에서 교사들은 평균 80%의 수업시간을 실제 가르치고 배우는 데 할애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소중한 수업시간을 행정업무와 학생지도로 낭비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답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규정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구성하는 참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교실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학생중심의 접근보다는 명확하게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구조화된 학습 접근을 더 강조하였다.

그림 D6.1 평균적인 교실 수업에서 시간의 분배(2007-2008)



© OECD 2009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서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